

희망세상 (2006년 9월호 / 48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6년 9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

코소보에서 왕십리로 정규현

지난 15년 동안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면서 많은 주변 사진가들에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시작하던 초기에는 선배 사진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고, 사진이 조금 지겨워지던 시기부터는 후배 사진가들에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배 사진가 중에 정규현 씨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랑제콜인 국립장식미술 학교에서 포토저널리즘을 전공한 정씨는 코소보 전쟁을 비롯해 북한의 탈북자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큐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그 사진들



은 우리가 알만한 매체인 <리베라시옹>과 <누벨옵세를바퇴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파리마치>에 실리기로 했던 기사가 정치적인 문제로 제외됐습니다. 처음에는 내 사진이 모자라 그런 것인가 낙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집장이 빠르빠농 사진페스티벌(세계적인 포토저널리즘-다큐멘터리사진 페스티벌)에 30장을 전시할 수 있는 단독전시를 추천해 줬습니다. 새옹지마라 할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 씨의 사진은 꽤나 큰 변화를 합니다. 정통스타일의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는 다큐먼트(기록) 사진으로 변합니다.

“국립장식미술학교를 다니던 2002년 봄에 이집트에 갔다가 거대한 영화 세트장을 봤습니다. 하도 낡고 밭 옆에는 나귀도 있어 이제는 농사를 짓나 보다 했는데, 그도 세트의 일부라더군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 그동안 가져왔던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왕십리, 길음동 등 뉴타운 개발 지구에서 주민들과 일회용 카메라로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가의 개인적인 세계관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진적인 성격이 강한 다큐먼트-아카이브 형식의 사진들입니다. 그는 이런 사진들을 도록으로 만들고 시디롬으로 제작해 각 구청이 소장하게 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사진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8X10인치 대형 카메라로 평범한 한국인의 얼굴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사진가입니다. ~~다.~~

글 이상엽 inpho@naver.com

다큐멘터리사진가로 웹진 이미지프레스 <http://imagepress.net/>의 대표.

『실크로드 탐사』(생각의 나무), 『그 곳에 가면 우리가 잊어버린 표정이 있다』(동녘) 등을 썼고 『붉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청어람미디어) 등을 기획하고 펴냈다.